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36
----------	------

발의연월일 : 2025. 1. 20.

발 의 자 : 김승원 · 박선원 · 박정현
김문수 · 이광희 · 박해철
임호선 · 한준호 · 서미화
이재강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뇌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 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 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누 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 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 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단서 <u>신설</u>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 ----- ----- ----- ----- ----- ----- . 다만, <u>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u> <u>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u> <u>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u> <u>하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